

# 사라진 초상, 사랑의 형태, 두 겹의 몸

ACC x 국립현대무용단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

내달 6일 안무가 3인 참여  
지역 감수성 담은 작품 초연



왼쪽부터 기은주, 김현재, 안선희 안무가.

<국립현대무용단 제공>

우리 시대의 사회, 역사, 사람에 대한 고찰이 몸짓으로 피어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국립현대무용단(단장·예술감독 김성용)이 함께 추진한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이 오는 9월6일 ACC예술극장 극장2무대에 오른다.

이번 '코레오 커넥션'에는 지난 2월 국립현대무용단이 전국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세 명의 안무가(기은주, 김현재, 안선희)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과 언어로 현대사회의 단면과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구한다.

'코레오 커넥션'은 지난해 국립현대무용단이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동시대적 시선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 중심의 창작 환경을 벗어나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 감수성을 안무가들의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는 ACC

와의 단독협업을 통해 무대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예술 생태계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먼저 기은주(제주) 안무가의 '사라진 초상'은 상실의 감각에 주목한다. 작품은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시작된다.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 기기 등 기술에 깊숙이 잠식된 일상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윤곽을 포착한다.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경계 위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존재를 안무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김현재(광주) 안무가의 '사랑의 형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에너지로 바라본다.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신체의 진동과 흐름을 통해 감정의 파동을 시각화한다. 몸을 통해 사랑이 만들어내는 흔적과 그

로 인해 빚어진 '지금의 나'를 직면하게 한다.

안선희(부산) 안무가의 '두 겹의 몸'은 인간과 구조라는 가시적 층위, 그리고 은유와 감각이라는 내면의 층위를 나란히 놓고 이 두 층위 사이의 긴장과 교차를 탐색한다.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움직임의 통해 '몸'이라는 존재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끌어내며 복합적인 신체의 결을 무대 위에 입체적으로 펼쳐낸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전석 1만8천원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안무가들이 자신의 영역과 예술성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체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명인을 향한 힘찬 도약... '전통의 새 물결'

16일 국립남도국악원 차세대 명인전  
강태훈·문가영·신솔찬·김정우 출연

'차세대 명인들이 선사하는 우리 음악과 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차세대 명인전 1 '전통의 새 물결'을 선보인다.

젊은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해 우리 음악과 춤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기획공연이다.

차세대 명인전은 지난해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젊은 예인전'을 전국으로 확대해 재기획한 공연이다.

예술적 기량 및 경쟁력을 갖춘 젊은 예술인들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출연자들이 공연 구성부터 출연까지 하나하나 만들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다.

이번 공연은 총 4명의 차세대 명인이 출연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공연은 강태훈의 '임동식제 거문고산조'로 문을 연다.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태훈은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2023)과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거문고 부문 금상(2017)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다음 무대는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 수석인

문가영의 '서용석류 피리산조'다. 문가영은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라삼현육각 전수자이기도 하다.

이어 제3회 임방울 국악제 무용 일반부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신솔찬의 '이매방류 살풀이'와 '버꾸춤'이 펼쳐진다.

공연의 대미는 전통예술원 유흥 단원 및 천안시립풍물단 인턴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우의 '비나리'와 '채상설장구'로 장식된다.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 파리서 꿈 펼칠 현대미술 작가 공모

(재)광주비엔날레, 18일까지

(재)광주비엔날레가 '2025 파리 씨떼 레지던시 입주 작가 공모'를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와 가나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한 명을 선정,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10월3일부터 약 3개월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씨떼 레지던시(Cite internationale des arts·사진)에 입주한다.

프랑스 파리 씨떼 레지던시는 1940년대부터 파리 마레 지구와 몽마르트를 거점으로 총 325개의 스튜디오를 보유 중이다.

연간 1천 명 이상의 작가가 이곳에서 창작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 공간을 포함

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환경으로,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열린 예술 생태계를 표방한다.

그동안 가나문화재단은 한국 작가들의 씨떼 레지던시 입주를 지원해왔으며, 이번에는 광주비엔날레와 협력해 광주 지역 작가에게 국제 예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 작가 창작 지원과 국제 교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활동한 광주 기반의 현대미술 작가 중 씨떼 레지던시 입주 이력이 없는 영어소통 가능자이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이메일(pavilion@gwangjubiennale.org)을 통해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 광주교대 '뮤지컬스쿨' 마스터클래스 운영

내달 12일까지 접수...총 15회 과정

뮤지컬의 이해를 시작으로 연기·안무·보컬 실습을 거쳐 세미뮤지컬 공연까지 완성하는 실전형 강좌가 마련됐다.

광주교육대학교 '뮤지컬 스쿨' 마스터클래스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12일까지이며 수업은 9월20일부터 12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총 15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뮤지컬의 태동과 한국 뮤지컬 이해(9월20일) ▲호흡·발성과 움직임의 통한 뮤지컬 체험(9월27일) ▲대본 리딩(10월4일) ▲가창(10월11·18일) ▲안무(10월25일·11월1일) ▲오디션(11월8일) ▲씬 연습과 블로킹(11월15·22·29일, 12월6일) ▲런스루(12월13일) ▲드레스리허설(12월20일) ▲수료발표 공연(12월27일) 등 단계별로 구성됐다.

지도에는 국내 정상급 창작진이 나선다.

연출은 '모차르트', '투란도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로미오와 줄리엣' 등 굵직한 작품을 연출하며 뮤지컬계 '황태자'로 불리는 유희성이 맡는다.



유희성

김루나

조선아

안무는 '미인', '유월', '꿈이 없어도 괜찮아' 등 다수의 무대에서 안무를 담당하고 '노트르담드 파리' 한국 초연 댄서로 활약했던 김루나가 책임진다.

음악감독은 '스프링 어웨이크닝', '코리아인', '바람의 나라-호동'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음악감독·연주를 맡아온 조선아가 무대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뮤지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원 홈페이지(http://mc.gnue.kr)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520-4283-4285.

한편 이번 '뮤지컬스쿨' 마스터 클래스는 교육청 RISE(지역혁신·상생 교육)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명진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